

## Effects of Acculturation Stress on Depression in Parents-in-law of Multicultural Families

### 다문화가족 시부모의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우울감에 미치는 영향

Soon-Hee Ryu<sup>1</sup>, Yun-Jeong Kim<sup>2</sup>

류순희<sup>1</sup>, 김윤정<sup>2</sup>

<sup>1</sup> Doctor, Dept. of the Elderly Welfare, Hanseo University, Republic of Korea, [ajangee@hanmail.net](mailto:ajangee@hanmail.net)

<sup>2</sup> Professor, Department of Social Welfare, Hanseo University, Republic of Korea, [twoyun21@hanmail.net](mailto:twoyun21@hanmail.net)

Corresponding author: Yun-Jeong Kim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understand the effects of acculturation stress on depression of parents-in-law in multicultural families. For this, from January to March 2022, a survey was conducted targeting the parents-in-law in multicultural families with foreign daughters-in-law, through the Family Support Center and Healthy Family/Multicultural Family Support Center in Chungcheongnam-do, and finally, total 315 questionnaires were used for analysis. Using the SPSS Win 24.0 ver, this study performed the reliability analysis, frequency analysis, descriptive statistical analysis, t-test, one-way ANOVA, and 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is. First, the acculturation stress of parents-in-law was 2.11 out of 5, and their depression was 1.50 out of 4, showing that both acculturation stress and depression were low. Second, when the health status of parents-in-law was bad, the acculturation stress was high. Also, when the foreign daughter-in-law was from Vietnam, when the level of education was lower than the graduation from middle school, and when the period of residence in Korea was 4-5 years, the acculturation stress was high. When the relationship with the daughter-in-law was not close, and when they were just holding back whenever having a problem with the daughter-in-law, the acculturation stress was high. Also, when the health/economic status of parents-in-law was bad, and when the relationship with the daughter-in-law was not close, the depression was high. Third, when the acculturation stress of parents-in-law in multicultural families was higher, their depression got lowered. Based on such results of this study, the measures for reducing the acculturation stress of parents-in-law in multicultural families were suggested.

**Keywords:** Parents-in-law in Multicultural Families, Acculturation Stress, Depression, Closeness with Daughter-in-law

**요약:** 본 연구에서는 다문화가족 시부모의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우울감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는데 연구의 목적이 있었다. 이를 위해 외국인 며느리를 맞은 다문화가족 시부모를 대상으로 하여 2022년 1~3월 충남의 가족지원센터 및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해서 설문조사를 하였으며 최종적으로 315부를 분석에 활용하였다. SPSS Win 24.0 ver을

\* 본 연구는 류순희(2022)의 박사논문의 일부를 수정보완하였음.

Received: December 08, 2022; 1<sup>st</sup> Review Result: January 22, 2023; 2<sup>nd</sup> Review Result: February 22, 2023

Accepted: March 31, 2023

사용하여 신뢰도분석, 빈도분석, 기술통계분석, t-test, Oneway ANOVA 및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첫째, 시부모의 문화적응 스트레스는 5점 만점에 2.11점, 우울감은 4점 만점에 1.50점으로써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우울감이 모두 낮은 수준이었다. 둘째, 시부모의 건강상태가 나쁜 경우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높았다. 또한, 외국인 며느리가 베트남 출신인 경우, 중졸 이하로 교육수준이 낮은 경우, 한국 거주기간이 4년~5년인 경우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높았다. 며느리와의 관계가 친밀하지 않은 경우, 며느리와 문제가 발생하면 그냥 참는 경우에도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높았다. 또한, 시부모의 건강상태와 경제상태가 나쁜 경우 우울감이 높았고, 며느리와의 관계가 친밀하지 않은 경우 우울감이 높았다. 셋째, 다문화가족 시부모의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우울감이 낮아졌다. 본 연구결과에 근거하여 다문화가족 시부모의 문화적응스트레스를 감소시키기 위한 방안을 제안하였다.

**핵심어:** 다문화가족 시부모, 문화적응 스트레스, 우울감, 며느리와의 친밀감

## 1. 서론

최근 20년간 급속도로 증가한 국제결혼과 그로 인해 유입된 결혼이민자의 확대됨에 따라 문화적응 스트레스에 관한 학문적, 사회적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 2021년 기준으로 다문화 가구는 385,219가구로 2020년 대비 4.7%(17,444가구) 증가하였으며, 국가별 분포도를 살펴보면 중국 51.2% (196,394가구), 베트남 22.7%(87,095가구), 필리핀 5.5%(21,138가구), 일본 3.7%(14,136가구), 기타 16.9% (66,456가구)로 나타났다[1]. 연령은 30~40대가 60.4%로 가장 많으며, 한국에서 10년 이상 거주자가 68.8%로 조사되었다. 평균 가구원 수는 2.82명으로 '18년(2.92명)보다 감소하였으며 특히 2인 가구의 비중이 39.2%로 '18년 (27.7%)에 비해 증가했다[2]. 다문화가구의 증가에 따라 결혼이민자·귀화자와 그들 가족에 대한 정책 지원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또한 다문화가족 정책의 발전과 함께 다문화가족의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우리나라보다 먼저 다문화사회로 진입한 서구에서는 스트레스 이론적인 모델을 적용하거나 비교연구 틀을 적용하여 여러 경험적인 연구들이 이루어지면서 문화적응 및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지속적인 관심을 보여 왔다[3-5]. 개인들은 자신이 성장하면서 익숙해진 문화적 사회에서 익숙하지 않은 문화적 사회로 진입을 하게 되고, 이 과정에서 개인적 수준에서의 심리적 변화뿐만 아니라 사회문화적 수준의 가치와 신념, 행동과 환경까지 변화를 경험하면서 자신이 속한 나라의 문화적 속성을 포기하고 현재 거주하는 나라의 지배적인 문화적 속성을 수용하고 선택하게 된다[6][7]. 이러한 과정을 통해 서로 다른 문화적 속성을 가지고 있는 개인이나 집단이 비교적 장시간에 걸쳐 접촉 관계를 유지하면서 그 결과로 어느 한쪽 또는 양쪽 성원들의 문화에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문화적응이라고 한다[8].

문화적응 스트레스는 서로 다른 문화가 접촉하여 적응과정에서 야기되는 일종의 스트레스[9]로써, 스트레스는 낮은 문화가 개인에게 요구되는 적응 능력이 개인의 내적 역량과 외적 역량 이상으로 과도하거나[10], 타문화 속에서 자신의 지지와 신념체계를 상실함으로써 유발될 수 있다[3]. 이러한 문화적응 스트레스는 개인이나 집단이 새로운 문화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경험하는 역기능적 긴장 상태로서, 불안, 우울, 사회적 위축 등 부정적 정서 속에서 부적응을 겪게 한다[3-5].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관련된 많은 연구[3-5][11-13]는 이민자, 유학생, 난민, 라틴계나

아시아계의 특정 민족 등의 다양한 문화적 집단들을 대상으로 수행되었으며,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적응 등과 관련된 다차원적인 측면에서 문화적응 스트레스를 연구해왔으며, 주로 새로운 사회로 이주한 당사자에 관한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었다.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어서 그간 결혼이주여성을 대상으로 한 연구[14-16]는 주로 결혼이주여성에 초점을 두어왔고, 외국인 며느리를 중심으로 한 부부 갈등, 배우자와 자녀, 시부모와의 부적응에 관한 내용 등이 꾸준히 보고 되어 왔다[17].

그런데, 가족은 하나의 체계로서 기능하기 때문에 외국인 며느리가 겪는 부부갈등, 자녀나 시부모와의 부적응 및 문화적응 스트레스는 시부모의 삶에도 영향을 미치는데 이에 관한 관심은 상대적으로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단지, 다문화가족 시부모를 긍정적인 지지와 정보 등을 제공해 주는 대처 자원이거나[18][19], 고부갈등으로 인한 문화적응 스트레스의 원인 중 하나로 연구[17]되는 경향이였다. 당연하게도 다문화가족 시부모도 노년기에 경험하는 어려움 외에 외국인 며느리를 맞은 후 타문화를 바라보는 외부의 부정적 시선과 외국인 며느리의 생소한 문화적 특성으로 인해 일상생활 속에서 스트레스가 높을 수밖에 없다[4][20][21]. 예를 들어, 외국인 며느리와의 문화적 차이로 인한 의사소통의 어려움[22], 문화의 수용 정도, 사고방식의 차이로 인한 의견충돌[23] 등의 스트레스를 경험하게 된다.

이러한 문화적응 스트레스로 다문화가족 시부모는 상당한 정신적, 신체적 피로감과 당혹감, 분노, 물리적 마찰 등을 경험하고 있으며[22], 다문화가족 시부모가 겪는 문화적응 스트레스는 우울감에 영향을 미친다[4][20][24][25]. 즉, 다문화가족 시부모의 심리적인 위축은 무력감과 좌절감을 가져와 삶의 만족을 저하시키고, 다문화가정 시부모의 우울감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이 문화적응 스트레스였다[24][26].

이러한 선행연구에 근거해서 본 연구에서는 다문화가족 시부모의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우울감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해보고자 한다.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다문화가족 시부모의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우울감의 수준은 어떠한가? 둘째, 주요 변수(시부모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며느리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시부모-며느리와의 관계 변수)에 따라 다문화가족 시부모의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우울감에는 차이가 있는가? 셋째, 다문화가족 시부모의 문화적응 스트레스는 우울감에 영향을 미치는가?이다.

## 2. 연구방법

### 2.1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절차

본 연구의 대상은 다문화가족 시부모이다. 2022년 1월~3월 가족지원센터를 통해서 설문조사를 하였다. 충남의 10개의 가족지원센터 및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센터장에게 기관당 30부 정도의 설문조사를 부탁하였고, 연구대상자용 답례품을 각각 준비하였다. 각 센터에서는 센터를 이용하는 다문화 여성에게 각자의 시부모님께 설문지에 응답해 주실 것을 의뢰하였고, 2주~3주 뒤에 회수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설문조사를 한 2022년 1월~3월에 코로나의 전국적 확산으로 설문지 회수 기간이 애초 예상보다 지연되었고 458부 중에서 315부가 회수되어 회수율은 68%였다. 설문조사는 1인당 30분 정도가 소요되었고 회수된 315부를 모두 분석에 활용하였다.

## 2.2 측정도구

### 2.2.1 문화적응 스트레스

독립변수인 문화적응 스트레스는 Lee[21]의 문화적응 스트레스를 수정·보완하여 사용하였다. 지각된 차별감 4문항, 지각된 적대감 5문항 중 2문항, 두려움 4문항 중 1문항, 문화충격 3문항, 기타 6문항으로 총 16문항으로 구성하였으며 5점 리커트형 척도이다. 분석에서는 하위요인으로 나누지 않고, 16개 문항 합산 평균값을 사용하였고 점수가 높을수록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척도의 신뢰도 Cronbach's alpha 값은 .938이다.

### 2.2.2 우울감

종속변수인 우울감은 한국복지패널[27]에서 사용하는 CES-D(Center for Epidemiologic Studies-Depression Scale) 단축 척도를 사용하였다. 11개 문항 4점 리커트형 척도이며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2개의 문항을 제외한 9개 문항을 사용하였고, 점수가 높을수록 우울감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척도의 신뢰도 Cronbach's alpha 값은 .912이다.

## 2.3 다문화가족 시부모와 며느리의 특성

전체 315명 중 시모가 76.5%이고 시부가 23.5%로 시모가 시부의 3배수가량 많았고, 시부모의 평균 연령은 74.00세였다. 무학 및 초졸인 시부모가 전체의 43.8%로 가장 많았고, 배우자가 있는 경우는 69.2%였다. 건강상태는 5점 만점에 3.09점이었고, 경제상태는 5점 만점에 3.14점이었다. 거주지는 중소도시에 거주하는 경우와 농어촌에 거주하는 경우가 각각 47.0%였다.

며느리의 출신국은 베트남인 경우가 39.8%로 가장 많았고, 필리핀/태국/기타인 경우는 33.4%, 중국은 26.8%로 가장 낮았다. 대졸 이상이 38.3%이고, 고졸이 34.2%, 중졸 이하는 27.5%로 교육수준이 높은 편이었다. 89.1%가 초혼이었고, 한국 거주 기간은 11년 이상이 36.9%로 가장 많았고, 자녀가 있는 경우가 87.9%였다.

마지막으로 다문화가족 시부모-며느리 관계를 살펴보면, 시부모와 며느리 간의 친밀감은 5점 만점에 3.91점으로 시부모와 며느리 간의 친밀감은 높은 편이었다. 며느리와 문화적 차이가 있는 영역은 기타 라이프스타일(옷 입는 습관, 가사분담방식, 부모부양방식, 가족의례, 종교 생활, 경제생활 등)을 제외하고 보면, 식습관 차이가 28.9%, 의사소통방식의 차이가 24.4%, 자녀 양육 및 교육방식의 차이는 12.7%였다.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문제 해결 방식은 주위 사람이나 전문상담가 등과 얘기하는 '주변 관계망 활용'이 34.3%로 가장 높았고, '그냥 참음'이 28.6%, 배우자와 상의는 21.0%, 혼자서 해결하고자 노력하는 경우는 16.2%였다.

## 2.4 분석방법

SPSS Win 24.0 version을 사용하여 신뢰도분석, 빈도분석, 기술통계분석, t-test, Oneway ANOVA 및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 3. 연구결과

#### 3.1 다문화가족 시부모의 문화적응 스트레스, 우울감의 수준

기술통계분석 결과, 시부모의 문화적응 스트레스는 5점 만점에 2.11점으로 중앙값인 3점보다 낮아서 문화적응 스트레스는 낮다고 볼 수 있다. 우울감도 4점 만점에 1.50점으로 상당히 낮은 수준이었다.

#### 3.2 주요 변인에 따른 다문화가족 시부모의 문화적응 스트레스 차이

[표 1] 시부모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시부모의 문화적응 스트레스의 차이

[Table 1] Differences in Acculturation Stress of Parents-in-law according to Socio-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Parents-in-law

		N	M	S.D.	t/F값	Scheffe's
성별	시부	74	1.99	0.718	-1.584	-
	시모	241	2.14	0.702		
연령	50세~64세	41	2.17	0.698	.038	N.S.
	65세~69세	45	2.15	0.597		
	70세~79세	134	2.11	0.744		
	80세 이상	95	2.05	0.713		
교육수준	무학/초졸	137	2.12	0.708	1.030	N.S.
	중졸	84	2.02	0.703		
	고졸 이상	92	2.17	0.715		
배우자 유무	유 배우자	218	2.12	0.701	.266	-
	무 배우자	96	2.09	0.729		
건강상태	나쁘다	71	2.17	0.770	4.825**	a
	보통이다	142	2.21	0.685		b
	좋다	102	1.93	0.666		ab
경제상태	나쁘다	38	2.10	0.726	.249	N.S.
	보통이다	189	2.09	0.724		
	좋다	87	2.15	0.670		
거주지	대도시	19	1.78	0.659	2.158	N.S.
	중소도시	148	2.13	0.735		
	농어촌	148	2.13	0.679		

\*\*p<.01, N.S.: No Signification

시부모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차이를 보면, 시부모의 건강상태에 따른 시부모의 문화적응 스트레스의 차이가 유의미했다[표 1]. 건강상태가 ‘나쁘다’인 시부모에 비해 ‘보통이다’인 시부모의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더 높았다(F=4.825, p<.01).

다음으로 며느리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차이를 보면, 며느리의 출신국, 교육수준, 한국 거주 기간에 따른 시부모의 문화적응 스트레스의 차이가 유의미했다[표 2]. 중국인 며느리를 맞은 시부모에 비해 베트남 며느리를 맞은 시부모의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높았고(F=5.292, p<.01), 며느리의 교육수준이 대졸 이상인 시부모에 비해 중졸 이하인 시부모의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높았고(F=7.157, p<.01), 며느리의 한국거주기간이

‘11년 이상’인 시부모와 비교하면 ‘4년에서 5년’인 시부모의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높았다( $F=3.618, p<.05$ ).

[표 2] 며느리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시부모의 문화적응 스트레스의 차이

[Table 2] Differences in Acculturation Stress of Mother-in-law according to Daughter-in-law's Sociodemographic Characteristics

		N	M	S.D.	t/F값	Scheffe's
출신국	중국	84	1.96	0.696	5.292**	a
	베트남	125	2.26	0.697		b
	필리핀/태국/기타	105	2.06	0.696		ab
교육수준	중졸 이하	86	2.33	0.722	7.157**	b
	고졸	107	2.11	0.688		ab
	대졸 이상	120	1.96	0.677		a
결혼상태	초혼	279	2.09	0.683	-1.046	-
	재혼	34	2.26	0.877		-
한국 거주 기간	3년 이하	44	2.14	0.664	3.618*	ab
	4년~5년	46	2.36	0.707		b
	6년~10년	108	2.15	0.696		ab
	11년 이상	116	1.97	0.706		a
자녀 유무	있다	275	2.11	0.690	-.139	-
	없다	38	2.13	0.829		-

\* $p<.05$ , \*\* $p<.01$

다음으로 시부모-며느리 간 관계 변수에 따른 차이를 보면, 며느리와의 친밀감, 며느리와 문제 발생 시 문제 해결 방식에 따른 시부모의 문화적응 스트레스 차이가 유의미했다[표 3].

[표 3] 시부모-며느리 간의 관계 변수에 따른 시부모의 문화적응 스트레스의 차이

[Table 3] Differences in Acculturation Stress of Parents-in-law according to Relationship Variables between Parents-in-law and Daughters-in-law

		N	M	S.D.	t/F값	Scheffe's
며느리와의 친밀감	친밀하지 않다	11	2.73	1.011	35.587***	b
	보통이다	79	2.57	0.702		b
	친밀하다	224	1.92	0.592		a
문화적 차이	식습관	314	2.11	0.706	2.215	N.S.
	의사소통방식	91	2.17	0.644		
	자녀 양육 및 교육방식	77	1.93	0.607		
	기타 라이프스타일	40	2.22	0.834		
며느리와의 문제 발생 시 문제 해결 방식	그냥 참음	107	2.15	0.761	4.044**	b
	혼자서 해결 노력	90	2.29	0.738		ab
	배우자와 상의	51	2.10	0.641		a
	주변 관계망 활용	66	1.91	0.728		ab

\*\* $p<.01$ , \*\*\* $p<.001$ , N.S.: No Signification

며느리와 ‘친밀하다’라는 시부모에 비해 ‘친밀하지 않다’ 및 ‘보통이다’라고 응답한 시부모의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높았고( $F=35.587, p<.001$ ), 며느리와 문제가 발생하면 ‘배우자와 상의한다’라는 시부모와 비교하면 ‘그냥 참는다’라는 시부모의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높았다( $F=4.044, p<.01$ ).

### 3.3 주요 변인에 따른 다문화가족 시부모의 우울감의 차이

시부모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차이를 보면, 건강상태와 경제상태에 따른 시부모의 우울감의 차이가 유의미했다[표 4]. 건강상태가 ‘보통이다’와 ‘좋다’인 시부모에 비해 ‘나쁘다’는 시부모의 우울감이 높았고( $F=10.312, p<.001$ ), 경제상태가 ‘좋다’인 시부모와 비교하면 ‘나쁘다’는 시부모의 우울감이 높았다( $F=3.548, p<.05$ ).

[표 4] 시부모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시부모의 우울감의 차이

[Table 4] Differences in Depression of Parents-in-law according to Socio-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Parents-in-law

		N	M	S.D.	t/F값	Scheffe's
성별	시부	74	1.48	0.570	-.489	-
	시모	241	1.51	0.572		
연령	50세~64세	41	1.49	0.571	1.161	N.S.
	65세~69세	45	1.39	0.390		
	70세~79세	134	1.49	0.538		
	80세 이상	95	1.58	0.676		
교육수준	무학/초졸	137	1.57	0.661	1.939	N.S.
	중졸	84	1.42	0.519		
	고졸 이상	92	1.48	0.453		
배우자 유무	유 배우자	218	1.46	0.506	-1.915	-
	무 배우자	96	1.61	0.688		
건강상태	나쁘다	71	1.73	0.750	10.312***	b
	보통이다	142	1.51	0.527		a
	좋다	102	1.34	0.416		a
경제상태	나쁘다	38	1.71	0.780	3.548*	b
	보통이다	189	1.50	0.571		ab
	좋다	87	1.41	0.436		a
거주지	대도시	19	1.39	0.508	1.154	N.S.
	중소도시	148	1.47	0.480		
	농어촌	148	1.55	0.655		

\* $p<.05$ , \*\*\* $p<.001$ , N.S.: No Signification

다음으로 며느리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차이를 보면, 유의미한 차이를 보인 변수는 없었다. 즉, 며느리의 출신국, 교육수준, 결혼상태, 한국 거주 기간, 자녀 유무에 따른 시부모의 우울감의 차이는 유의하지 않았다(표로 제시하지 않음).

다음으로 시부모-며느리 간의 관계변수에 따른 차이를 보면, 친밀감에 따른 우울감의

차이만 유의했다[표 5]. 즉, 시부모-며느리 간의 친밀감을 ‘친밀하지 않다’ 및 ‘보통이다’라고 여기는 경우에 ‘친밀하다’에 비해 우울감이 높았다( $F=20.105, p<.001$ ).

[표 5] 시부모-며느리 간의 관계 변수에 따른 시부모의 우울감의 차이

[Table 5] Differences in Parents-in-law's Depression according to the Relationship Variables between Parents-in-law and Daughters-in-law

		N	M	S.D.	t/F값	Scheffe's
며느리와의 친밀감	친밀하지 않다	11	2.07	0.772	20.105***	b
	보통이다	79	1.76	0.720		b
	친밀하다	224	1.39	0.445		a
문화적 차이	식습관	91	1.51	0.566	1.993	N.S.
	의사소통방식	77	1.38	0.486		
	자녀 양육 및 교육방식	40	1.61	0.700		
	기타 라이프스타일	107	1.55	0.570		
며느리와의 문제 발생 시 문제 해결 방식	그냥 참음	90	1.52	0.577	1.189	N.S.
	혼자서 해결 노력	51	1.61	0.604		
	배우자와 상의	66	1.41	0.480		
	주변 관계망 활용	108	1.50	0.599		

\*\*\* $p<.001$ , N.S.: No Signification

### 3.4 시부모의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우울감에 미치는 영향

시부모의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우울감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서 1단계에서는 시부모의 건강상태와 경제상태, 며느리의 출신국, 교육수준 및 한국 거주 기간, 며느리와의 친밀감과 문제 발생 시 문제해결방식의 7개의 변수를 투입하였고, 2단계에서는 시부모의 문화적응 스트레스를 투입하였다. 1단계의 7개 변수는 통제변수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써, 표2에서부터 표 5까지의 연구결과에 기반하여 변수를 선별하였다.

위계적 회귀분석 결과, 1단계의 7개의 통제변수는 다문화가족 시부모의 우울감을 15.6% 설명하였고, 모델은 유의하였다( $F=7.929, p<.001$ ). 개별변수의 영향력을 살펴보면 시부모의 건강상태가 좋을수록( $\beta=-3.063, p<.01$ ), 며느리와 친밀하다고 느낄수록( $\beta=-5.501, p<.001$ ) 우울감이 낮아졌으며, 며느리와의 친밀감의 영향력이 더 컸다. 다음으로 2단계에서 문화적응 스트레스 변인을 투입한 결과 8개 변수의 설명력은 23.6%로 9.0%가 향상되었으며, 모델도 유의하였다( $F=11.563, p<.001$ ). 개별변수의 영향력을 보면 시부모의 건강상태가 좋을수록( $\beta=-2.865, p<.01$ ), 며느리와 친밀하다고 느낄수록( $\beta=-2.981, p<.01$ ) 우울감이 낮아졌고,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높을수록( $\beta=5.604, p<.001$ ) 우울감이 높아졌다. 즉,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투입되었어도 시부모의 건강상태와 며느리와의 친밀감의 영향력은 여전히 유의하나 상대적 영향력의 크기는 감소하였고, 3개 변수 중 문화적응 스트레스의 영향력이 가장 컸다.

[표 6] 다문화가족 시부모의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우울감에 미치는 영향

[Table 6] The Effects of Acculturation Stress on Depression in Parents-in-law of Multicultural Families



		B	$\beta$	t 값	B	$\beta$	t 값
	(상수)	2.854		13.203***	1.987		7.718***
1단계	시부모 건강상태	-.126	-.175	-3.063**	-.113	-.156	-2.865**
	시부모 경제상태	-.042	-.048	-.855	-.077	-.087	-1.605
	며느리 출신국(1=베트남)	.048	.041	.692	.005	.004	.072
	며느리 교육수준(1=중졸이하)	-.050	-.039	-.678	-.083	-.065	-1.178
	한국거주기간	.002	.016	.292	.006	.054	1.016
	며느리와의 친밀감	-.211	-.311	-5.501***	-.117	-.173	-2.918**
	문제발생시해결방안(1=참는다)	-.088	-.070	-1.277	-.116	-.092	-1.769
2단계	문화적응 스트레스				.266	.330	5.604***
				F값 = 7.929*** R <sup>2</sup> = .156	F값=11.563*** R <sup>2</sup> = .236 R <sup>2</sup> 변화량 =.080		

\*\*p&lt;.01, \*\*\*p&lt;.001

## 4. 논의 및 제언

### 4.1 논의

본 연구의 주요결과를 요약하면서 선행연구의 결과와 비교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시부모의 문화적응 스트레스는 5점 만점에 2.11점, 우울감은 4점 만점에 1.50점으로써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우울감은 낮은 수준이었다. 이러한 경향은 시부모의 문화적응 스트레스는 5점 만점에 평균 2.03점[21], 2.23점[28], 2.54점[29]이었고, 우울감은 4점 만점에 2.51점[30]이라는 선행연구 결과와 유사하다. 따라서 본 연구의 다문화가족 시부모는 문화적응 스트레스나 우울감은 다른 연구의 대상자와 유사했다. 또한, 시부모와 며느리 간의 친밀감은 5점 만점에 3.91점으로 시부모와 며느리 간의 친밀감은 높은 편이었으나, 며느리와의 문제가 발생하면 문제 해결 방식은 주위 사람이나 전문상담가 등과 얘기하는 ‘주변 관계망 활용’이 34.3%로 가장 높았고, ‘그냥 참음’이 28.6%, 배우자와 상의는 21.0%, 혼자서 해결하고자 노력하는 경우는 16.2%였다.

이처럼 다문화가족 시부모의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낮은 것은 외국인 며느리를 맞이하고 나서 많은 사건들을 겪으면서 적극적으로 수용하기보다는 체념하는 부분이 많다는 것을 시사하는 결과이다. ‘다른 나라에서 온 사람이기 때문에’라고 생각하면서, 많은 부분들을 이해하고 넘기고 있음을 예측할 수 있다. 즉, 다문화가족 시부모들은 자신들이 겪고 있는 크고 작은 일들을 문화가 달라서 나타나는 문제 혹은 스트레스라 여기고,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보다는 다소간 체념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다문화가족 시부모들은 주위의 시선을 의식하여 가급적이면 외국인 며느리와 문제를 만들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강해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모든 문제를 자신들이 끌어안아 해결하려 하는 경향이 짙다. 따라서 문제를 인식한 뒤,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드러내어 문제화를 시키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조용히 해결하거나, 그대로 두는 쪽을 택하는 경우가 많아, 본 연구에서 조사한 문화적응 과정에서의 스트레스 정도는 실제의 문화적응 스트레스 보다 낮게 나온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문제가 발생하면 그냥 참는 경우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높다는 본 연구의 결과는 다문화가족 시부모의 문화적응 스트레스를 좀 더 낮추고, 이러한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시부모의 정신건강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력을 낮추기 위한 적극적 방안이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둘째, 시부모의 문화적응 스트레스를 보면, 시부모의 건강상태가 나쁜 경우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높았다. 또한, 외국인 며느리가 베트남 출신인 경우, 중졸 이하의 교육수준이 낮은 경우, 한국 거주기간이 4년~5년인 경우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높았다. 또한, 며느리와의 관계가 친밀하지 않은 경우, 며느리와 문제가 발생하면 그냥 참는 경우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건강에 대한 주관적인 인식이 낮을수록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높고[25][31-34], 며느리의 한국 거주기간이 짧을수록 시부모의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높았으며[33], 며느리와의 관계가 친밀하다고 지각하였을 때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낮다는 선행연구 결과[33]와 같은 맥락이다. 또한, 외국인 며느리와의 갈등관계 상황에서 적극적이며 능동적인 대처를 사용하기보다는 혼자서 참고 인내하는 수동적인 대처를 더 빈번하게 사용할수록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높다는 결과[20][35]를 지지한다.

셋째, 시부모의 우울감을 보면, 시부모의 건강상태와 경제상태가 나쁜 경우 우울감이 높았고, 며느리와의 관계가 친밀하지 않은 경우 우울감이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주관적 건강상태와 경제상태가 열악할수록 우울감이 높아진다는 선행연구[36-42]를 지지한다. 또한, 결혼이주여성의 일상생활 부분에 대해 많은 도움을 주는 시부모의 경우 며느리와의 유대감이 돈독할수록 우울감은 낮다[43][44]는 선행연구와 부분적으로 일치한다.

넷째, 시부모의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우울감이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문화적응 스트레스 수준이 높을수록 우울감이 높아진다는 선행연구[17][20][23][24][35]와 같은 맥락이다.

## 4.2 제언

본 연구결과에 근거하여 다문화가족 시부모의 문화적응 스트레스를 감소시키고 우울감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다음 3가지의 제안을 하고자 한다.

첫째, 다문화가족 시부모와 며느리를 위한 통합적이고 쌍방향적인 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는 점을 제안한다. 즉, 다문화가족 시부모의 우울감을 낮추기 위해서는 다문화가족 시부모를 대상으로 공감프로그램 참여 유도, 감정나누기 활동 등의 참여를 통해 상호지지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며느리 국가의 문화 접촉을 늘려가면서 문화적응 스트레스를 낮출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또한, 며느리 당사자에게 한국어 교육 및 한국문화 습득의 기회를 제공함과 동시에 시부모에게도 며느리의 문화를 이해하고 배울 수 있는 구조적이면서도 쌍방향적인 프로그램이 다양하게 개설·운영됨으로써 다문화가족 시부모의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감소되고 타문화에 대한 수용성이 향상됨으로써 우울감을 낮출 수 있다. 그런데, 현행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사업내용은 대부분이 결혼이주여성 혹은 배우자에게 초점을 두고 있어 함께 생활하고 있는 시부모가 프로그램에 직접 참여하는 경우는 제한적이다. 따라서, 시부모가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야 하며, 거동이 불편하거나 센터 접근성이 낮은 경우 가정방문을 통한 상담, 수요자 중심의 프로그램 제공, 주민자치센터와의 연계를 통해 수시로 시부모의 참여를 독려할 필요가 있다.

둘째, 외국인 며느리에게 실시하는 사회통합프로그램을 외국인 며느리를 둔 시부모에게도 실시하여 타 문화권에 대한 이해와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는 사회통합 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교육의 대상은 항상 외국인 며느리이며, 실제적

프로그램에 있어서도 교육내용 역시 한국문화 바로 알기, 한국어교육, 부부교육, 다문화가족 자조모임 등과 같이 한정적이며 보편적 적응에만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따라서 다문화적 접근이나 상호이해를 바탕으로 한 당사자 모두에게 프로그램을 실천하는 것이 더욱 큰 의미를 갖는다 하겠다. 외국인 며느리가 우리나라의 문화를 익히고 수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외국인 며느리를 둔 시부모도 며느리의 문화를 이해하고 그 차이를 인정하는 것도 중요하다. 그러므로 다문화가족의 프로그램은 외국인 며느리뿐만 아니라 다문화가족 시부모에게도 문화간 갈등조정을 위한 상담프로그램, 시부모 동반 여가 프로그램, 시부모와의 의사소통 훈련 프로그램 등 교육의 기회가 다양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셋째, 다문화가족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는 차별화된 가족서비스 지원 중점기관의 역할을 정립하기 위한 센터 내외부적 사업 여건의 점검과 다문화가족의 다양한 욕구에 맞춤형 지원이 가능하도록 지역단위 서비스 제공기관과의 연계 협력강화, 서비스 제공 및 기능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또한 노인 전문상담가와 같은 전문 인력을 확보를 비롯하여 다문화가족의 포괄적인 문제해결을 위한 전반적인 네트워크 구축 역시 병행되어야 할 과제를 제안한다.

## References

- [1] Statistics Korea, Population and Housing Census, (2022)  
Available from: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JD1505&vw\\_cd=MT\\_ZTITLE&list\\_id=A12\\_2015\\_1\\_10\\_20&seqNo=&lang\\_mode=ko&language=kor&obj\\_var\\_id=&itm\\_id=&conn\\_path=MT\\_ZTITLE](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JD1505&vw_cd=MT_ZTITLE&list_id=A12_2015_1_10_20&seqNo=&lang_mode=ko&language=kor&obj_var_id=&itm_id=&conn_path=MT_ZTITLE)
- [2]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National Multicultural Families Survey Study, (2022)  
Available from: [http://www.mogef.go.kr/nw/rpd/nw\\_rpd\\_s001d.do?mid=news407](http://www.mogef.go.kr/nw/rpd/nw_rpd_s001d.do?mid=news407)
- [3] J. W. Berry, U. Kim, T. Minde, D. Mok, Comparative Studies of Acculturative Stress, *International Migration Review*, (1987), Vol.21, No.3, pp.491-511.  
DOI: <https://doi.org/10.1177/019791838702100303>
- [4] Y. Oh, G. F. Koeske, E. Sales, Acculturation, Stress, and Depressive Symptoms among Korean Immigrants in the United States, *The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2002), Vol.142, No.4, pp.511-526.  
DOI: <https://doi.org/10.1080/00224540209603915>
- [5] D. A. Chiriboga, Y. Jang, S. Banks, G. Kim, Acculturation and its Effect on Depressive Symptom Structure in a Sample of Mexican American Elders, *Hispanic Journal of Behavioral Sciences*, (2007), Vol.29, No.1, pp.83-100.  
DOI: <https://doi.org/10.1177/0739986306295875>
- [6] S. S. Fugita, D. J. O'Brien, Structural Assimilation, Ethnic Group Membership, and Political Participation among Japanese Americans: A research Note, *Social Forces*, (1985), Vol.63, No.4, pp.986-995.  
DOI: <https://doi.org/10.1093/sf/63.4.986>
- [7] Y. N. Lee, A study on the Effects of Cultural Adaptation Stress on the Efficacy of the Parental Role of Immigrant wives, Baekseok University, Doctor Dissertation, (2011)  
Available from: <http://www.riss.kr/link?id=T12304420>
- [8] J. W. Berry, *Human Ecology and Cognitive Style: Comparative Studies in Cultural and Psychological Adaptation*, New York: Sage Publications, (1976)
- [9] L. McClurg, Acculturative Stress and Problematic Behavior in Hispanic-American Adolescents, George Mason University, Doctoral Dissertation, (2007), UMI Number. 3235123
- [10] R. S. Lazarus, S. Folkman, *Stress, Appraisal, and Coping*, NY: Springer Publishing Company, (1984)

Available from: [https://books.google.co.kr/books?hl=ko&lr=&id=i-ySQQuUpr8C&oi=fnd&pg=PR5&dq=R.S.+Lazarus,+S.+Folkman,+Stress,+Appraisal,+and+Coping,+NY:+Springer+Publishing+Company,+1984.&ots=DgJTnqkiTa&sig=VioHy9OxZPpq0CmZXqU0qg2HGdo#v=onepage&q=R.S.%20Lazarus%2C%20S.%20Folkman%2C%20Stress%2C%20Appraisal%2C%20and%20Coping%2C%20NY%3A%20Springer%20Publishing%20Company%2C%20\(1984\).&f=false](https://books.google.co.kr/books?hl=ko&lr=&id=i-ySQQuUpr8C&oi=fnd&pg=PR5&dq=R.S.+Lazarus,+S.+Folkman,+Stress,+Appraisal,+and+Coping,+NY:+Springer+Publishing+Company,+1984.&ots=DgJTnqkiTa&sig=VioHy9OxZPpq0CmZXqU0qg2HGdo#v=onepage&q=R.S.%20Lazarus%2C%20S.%20Folkman%2C%20Stress%2C%20Appraisal%2C%20and%20Coping%2C%20NY%3A%20Springer%20Publishing%20Company%2C%20(1984).&f=false)

- [11] A. O. Miranda, K. B. Matheny, Socio-psychological Predictors of Acculturative Stress among Latino Adults, *Journal of Mental Health Counseling*, (2000), Vol.22, No.4, pp.306-317.  
Available from: <https://eric.ed.gov/?id=EJ617572>
- [12] T. Jibeen, R. Khalid, Development and Preliminary Validation of Multidimensional Acculturative Stress Scale for Pakistani Immigrants in Toronto, Canada, *International Journal of Intercultural Relations*, (2010), Vol.34, pp.233-243.  
DOI: <https://doi.org/10.1016/j.ijintrel.2009.09.006>
- [13] L. Torres, Predicting Levels of Latino Depression: Acculturation, Acculturative Stress, and Coping, *Cultural Diversity and Ethnic Minority Psychology*, (2010), Vol.16, No.2, pp.256-263.  
DOI: <https://psycnet.apa.org/doi/10.1037/a0017357>
- [14] G. Y. Kweon, K. W. Park, A Study on Influence Factors to the Mental Health of Foreign Wives, *Social Studies*, (2007), Vol.8, No.2, pp.187-219.
- [15] I. S. Na, Affecting Factors on the Stress among Foreign immigrant Women by marriage in Korea, *Korean Non-profit Research*, (2008), Vol.7, No.1, pp.97-135.
- [16] C. K. Park, A Study on International Married Woman Migrants and their Husbands Adjustment on Family Lives in Gyeonggi-do Province, *Health and Social Science*, (2009), No.26, pp.137-163.  
Available from: <http://www.riss.kr.library.hanse.ac.kr:8000/link?id=A104442310>
- [17] E. Y. Seong, S. T. Hwang, A Study on the Conflict of Mother-in-law and Daughter-in-law, Coping Strategies, Mental Health in Multicultural Family, *The Korean Journal of Woman Psychology*, (2013), Vol.18, No.1, pp.243-256.
- [18] M. J. Kim, The Changing Face of Families in Korean Society and Filipina Wives in Rural Areas, *Issues in Feminism*, (2007), Vol.7, No.2, pp. 213-248.
- [19] O. N. Kim, Mental Health of Immigrant Women in Rural Communities -Focusing on Acculturative Stress and Social Support-, *Korean Journal of Family Welfare*, (2007), Vol.12, No.3, pp. 47-73.
- [20] E. Y. Seong, J. E. Kwon, S. T. Hwang, A Qualitative Study on the Conflict of Mother-in-laws of Multicultural Families: Focusing on the Rural Areas, *The Korean Journal of Woman Psychology*, (2012), Vol.17, No.3, pp.363-383.  
DOI: <https://doi.org/10.18205/kpa.2012.17.3.004>
- [21] H. J. Lee, A study on the acculturative stress of elder people in rural community who have a foreign daughter-in-law, *Ewha Womans University, Master Thesis*, (2007)
- [22] E. S. Gong, A Case Study on the Conflict between a Korean Mother-in-law and a Vietnamese Daughter-in-law, *Korean Journal of Research in Gerontology*, (2009), Vol.18, No.1, pp.123-134.  
Available from: <http://www.riss.kr.library.hanse.ac.kr:8000/link?id=A105798624>
- [23] J. Young, K. S. Kim, T. H. Noh, Comparison of Verbal Interaction Patterns in Science Cooperative Learning based on Grouping by Middle School Students' Collectivism, *Journal of the Korean Association for Science Education*, (2014), Vol.34, No.3, pp.221-233.  
DOI: <https://doi.org/10.14697/jkase.2014.34.3.0221>
- [24] D. H. Kim, E. S. Kim, Effects of Acculturative Stress, Parenting Stress, and Social Support on Perceived Health Status of Married Immigrant Women, *Journal of Korean Public Health Nursing*, (2015), Vol.29, No.2, pp.344-353.
- [25] J. E. Kim, H. M. Kim, Depression among Elderly in Multicultural Families, *Journal of the Korea Gerontological Society*, (2013), Vol.33, No.1, pp.143-162.
- [26] B. O. You, The Elderly's Mental Health Level and Relevant Factors,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Master Thesis*, (2012)
- [27] F. J. Kohout, L. F. Berkman, D. A. Evans, J. Cornoni-Huntley, Two shorter Forms of the CES-D Depression Symptoms

Index, *Journal of aging and health*, (1993), Vol.5, No.2, pp.179-193.  
DOI: <https://doi.org/10.1177/089826439300500202>

- [28] E. J. Park, A Study on the Factors Influencing Social Integration of Married Immigrant Women, Sookmyung Women's University, Doctor Dissertation, (2019)
- [29] J. W. Lee, Effects Which Social Support has on Life Satisfaction according to Family Relation Stress of Women in Multi-cultural Homes, DaeguHaany University, Doctor Dissertation, (2011)
- [30] J. H. Cho, A Study on the Acculturation Stress among Internationally-married Female Immigrants, Hoseo University, Master Thesis, (2009)
- [31] M. H. Kim, Effects of Satisfaction of Mother-in-Law and Daughter-in-Law Relationship on Mother-in-Law's Mental Health in Multicultural Families Daegu Haany University, Doctor Dissertation, (2015)
- [32] H. J. No, The Factors involved in Aged People's Stress and their Coping Styles: in Demographical Variables and Personality Types, Myoungji University, Master Thesis, (2002)
- [33] M. J. Park, A Study on Quality of Life of Elderly Women Living with a Foreign Daughter-in-law, Baekseok University, Doctor Dissertation, (2012)
- [34] D. H. Shin, The Effect of Mother-daughter-relationship Which the Mother-in-law of Multicultural Families and Cultural Adjustment Stress on Her Life Satisfaction, Hanseo University, Master Thesis, (2012)
- [35] S. D. Jeong, H. J. Lee, A Phenomenological Study on the Experience of Mothers-in-Law Who have Foreign Daughters-in-Law-Focused on Seoul city residents-, *Korean Journal of Family Social Work*, (2010), No.28, pp.5-36.  
DOI: <https://doi.org/10.16975/kjfs.w.2010..28.001>
- [36] M. S. Ko, I. K. Seo, Influences of the Elderly's Health Status upon their Stress and Depression and Moderating Effects of Social Supports, *The Journal of the Korean Public Health Association*, (2011), Vol.37, No.1, pp.1-14.
- [37] J. H. Kim, W. Kim, The Effects of Preparation for Aging on Resilience and Mediating Effects of Self-esteem of the Elderly, *Korean Journal of Gerontological Social Welfare*, (2013), No.62, pp.231-256.  
DOI: <https://doi.org/10.21194/kjgsw..62.201312.231>
- [38] H. S. Kim, B. S. Kim, The Effects of Self-Esteem o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Elderly Stress and Depression, *Journal of the Korea Gerontological Society*, (2007), Vol.27, No.1, pp.23-37.
- [39] Y. H. Nam, J. R. Nam, A Study of the Factors Affecting the Subjective Health Status of Elderly People in Korea, *Korean Journal of Family Welfare*, (2011), Vol.16, No.4, pp.145-162.
- [40] E. S. Jung, Acculturative Stress and Stress Coping Strategies on Elderly Depression in Multi-cultural Families,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Home Health Care Nursing*, (2017), Vol.24, No.2, pp.133-141.  
DOI: <https://doi.org/10.22705/jkashcn.2017.24.2.133>
- [41] J. Y. Cheon, N. H. Lee, Depression in the Elderly for the Mediating Effect of Coping Strategies of Family Conflict, *Journal of the Korea Gerontological Society*, (2011), Vol.31, No.4, pp.169-1187.
- [42] J. N. Choo, E. K. Kim, Factors Associated with Self-rated Health among an Elderly, Low-income Population,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alysis Society*, (2014), Vol.16, No.3, pp.1615-1628.
- [43] M. J. Park, A study on Quality of Life of Elderly Women Living with a Foreign Daughter-in-law, *Korean Academy Of Practical Human Welfare Practice*, (2014), Vol.12, pp.7-30.
- [44] S. D. Jeong, H. J. Park, H. J. Lee, Perceived Relationships of Parents-in-law with Foreign Daughters-in-law and Factors Related to their Relationships in Multi-cultural Families, *Korean Journal of Family Social Work*, (2010), No.29, pp.29-54.  
DOI: <https://doi.org/10.16975/kjfs.w.2010..29.002>